

제4절 교육 공간 : 서원과 향교⁸³⁶

1. 서원

1) 고산서원(孤山書院)

고산서원은 동봉(東峰) 김시습(金時習),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 서파(西波) 오도일(吳道一)을 배향하였다. 근남면 행곡리 구미동에 있다. 1628년(인조 6) 만휴 임유후가 고산(孤山)에 정사(精舍)를 신축(新築)하였다. 1673년(현종 14) 고산사를 창건하여 임유후를 봉안하였다. 1686년(숙종 2) 김시습을, 1709년(숙종 35)에 오도일을 배향했다. 1715년(숙종 41)에 서원으로 승격돼 고산서원이 되었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 현재 강당과 유허비가 있다.

2) 노동서원(魯東書院)

노동서원은 1816년(순조 16) 창건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하고 있다.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었다. 1921년에 유생들이 강학소(講學所)를 설치(設置)하고 송시열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다. 현재 기성면 황보리 노동마을 뒷산 허리 아래에 서남향으로 자리해 있다.

3) 명계서원

1671년(현종 12)에 지역 사족들의 공의로 황응청(黃應清)과 황여일(黃汝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황응청(黃應清)[1524~1605]은 본관은 평해(平海)이고, 자는 청지(淸之), 호는 대해(大海)이다. 부친은 훈도 황우(黃瑀)이다.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1537~1599]의 종사관으로 공을 세우고 참판(參判)을 지낸 황여일(黃汝一)이 조카이다.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황중신(黃中信)은 그의 손자다. 1552년(명종 7)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 12위로 합격하고, 1580년(선조 13) 별시에 응시했으나, 시험 문제가 좋지 않음을 보고 바로 과장을 나왔다. 1584년(선조 17) 천거로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개성(開城) 연은문참봉(延恩門參奉)에 제수되었을 때는 박연폭포(朴淵瀑布)만 보고 바로 돌아와 버렸다. 1594년(선조 27) 장원서별좌(掌苑署別坐)에 제수되었을 때, 4가지 시폐를 개진하

836. 울진군편찬위원회, 2001, 앞 책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2020. 12. 28

자, 왕이 가납하여 진보현감(眞寶縣監)을 제수하였다. 진보현감 시절 민심을 수습하였다. 조목(趙穆)[1524~1605], 박성(朴惺)[1549~1606], 이산해(李山海)[1538~1609] 등과 교유하였다. 특히 이산해가 평해(平海)로 귀양갔을 때 항상 왕래하며 교유하였다. 문집으로 『대해집(大海集)』이 있다.

황여일(黃汝一)[1556~1622]은 본관은 평해(平海)이고, 자는 회원(會元)이며 호는 해월헌(海月軒) 또는 매월헌(梅月軒)이다. 황세충(黃世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황연(黃璉)이며, 아버지는 유학(幼學) 황응징(黃應澄)이다.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목사, 1617년 동래진 병마첨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조천록(朝天錄)』·『해월집(海月集)』 14권 7책이 있다.

명계서원은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며, 1881년 서원유지에 강학소(講學所)를 세워 교육을 계속 이어갔다. 그 뒤 지역 사족들이 힘을 모아 1983년에 복원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 12칸의 명계당(明溪堂), 신문(神門) 등이 있다. 사우에는 황응청과 황여일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강당인 명계당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강론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매년 3월 상정(上丁)과 9월 상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5변(邊) 5두(豆)이다. 재산으로는 논 600평과 대지 800평 등이 있다.

4) 몽천서원(蒙泉書院)

몽천서원은 우암(憂菴) 윤시형(尹時衡)·황립(篁林) 윤사진(尹思進)을 배향하였다. 1693년(숙종 19) 원남면 금매리 몽천동(蒙泉洞)에서 창건하였다. 1797년(정조 21)에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1856년(철종 7) 향수(享需)를 관공(官供)하였다. 1868년(고종 5)에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하였다. 이후 몽천당으로 재건해 황립 생일인 음력 3월 22일에 모여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있다.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이 있다.

5) 신계서원(新溪書院)

신계서원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계산(溪山) 김수근(金洙根)을 배향하였다. 1749년(영조 25)에 울진읍 신림리(新林里)에 창건하여 김창흡(金昌翕)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다. 1826년(순조 26) 울진읍 호월리(湖月里) 용저동(龍渚洞)으로 이건(移建)하고, 신계

서원(新溪書院)으로 편액하였다. 1854년(철종 2)에 장예곡(壯禮谷)[호월리 장례동]으로 이건하고, 김수근을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고, 유허비가 세워졌다. 1968년에 유림에서 울진읍 호월리 용저동에 중건하였으나 1993년 폐사되었다.

6) 옥계서원(玉溪書院)

옥계서원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석당(石堂) 김상정(金相定)·만은(晚隱) 전선(田銑)을 배향하였다. 1740년(영조 16) 읍내리 옥계동(玉溪洞)에 창건돼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였다. 1777년(정조 원) 초평(草坪)으로 이건하였다. 이때 경본(京本)을 개모(改模)하고 영당(影堂)이라 불렀다. 1829년(순조 29) 우암 송시열의 신판(神板)을 봉안(奉安)하였고 옥계서원(玉溪書院)이라 편액(扁額)하였다. 1832년(순조 32) 용장으로 이건하고, 김상정을 봉안하였다. 1857년(철종 8)에 전선을 별묘(別廟)에 추향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었고, 1872년에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4년 뒤 북면 고목리(古木里) 기곡(基谷)에 이수(移豎)하고 강당(講堂)을 겸축(兼築)하였다.

현재 『만향계안(晚香稟案)』, 『옥계당안(玉溪堂案)』, 『후촌당집옥계서류초선(後村堂集玉溪書類抄選)』의 필사본, 『어촌선생문집』 석인본,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한적(漢籍) 104책이 현존하고 있다.

7) 옥동서원(玉洞書院)

옥동서원은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를 배향하였다. 옛 이름은 옥계서원(玉溪書院)이다. 울진읍 읍내리 옥계동에 있었다. 1574년(선조 7)에 현령 정구수(丁龜壽)가 향인(鄉人)과 더불어 원사(院祠)를 세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소실되었다. 1621년(광해군 13) 몽천사(蒙泉祠)에 옮겨 향사(享祠)하였다.

8) 운암서원(雲巖書院)

운암서원은 백암(白岩) 김제(金濟)·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를 배향하고 있다. 1826년(순조 26) 온정면 반암동에서 태어났다. 원정인(元貞仁)·이원형(李元馨)·조석조(曹錫祚)·박홍주(朴弘周) 등이 주도해 온정면 노은동으로 이건(移建)하였다.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1964년에 유생들이 기성면 구산리로 이건하였다. 유생 김용수(金溶琇)·황중곤(黃中坤) 등이 강학당(講學堂)을 노은동 유지에 복설하고 공자의 진상을 봉안하였다. 현재 운암서원 내에는 사당·비각·강당 등 3동이 있다.

9) 월계서원

월계서원은 장말익(張末翼)과 그의 8세손인 판서 장양수(張良守)를 배향하고 있다.

1856년(철종 7)에 울진읍 호월리 무월동에 항내 사람들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월계사(月溪祠)가 창건되었고, 1862년(철종 13)에 월계서원이라 이름 붙여졌다.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었고, 1924년과 1925년에 고성리 가원동으로 이전하여 세덕사(世德祠)라 하다가 3년 후에 경덕사(景德祠)로 개칭하였고, 광복과 더불어 월계서원이라 복칭(復稱)하였다. 매년 10월 정일(丁日)에 배향하고 있다. 서원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좌우에 온돌방을 들인 중당협실형으로 앞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 마루를 설치하였다.

장양수는 본관은 울진(蔚珍)이고, 울진부원군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영동정판문하성사(令同正判門下省事) 장영의(張令宜)이고, 할아버지는 직장(直長)을 지냈다. 아버지는 동정(同正) 장한련(張漢連)이며, 어머니는 울진 임씨로 임유무(林惟茂)의 딸이다. 1205년(희종 1)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전리판서(典理判書)를 거쳐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남송 영종 때 사신으로 가서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많은 공적을 남겼다. 장양수의 사적들은 인멸되었으나 진사시 급제 증서인 급제 패지가 남아 있다. 1856년 경상북도 울진군의 사람들이 울진읍 호월리 무월동에 월계사(月溪祠)를 짓고 문성공(文成公) 장말익(張末翼)과 함께 배향하였다. 1862년 월계사가 월계서원으로 승격되었으나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

1924년 후손과 울진군의 사람들이 고성2리 가원동으로 사당을 이전하고 세덕사(世德祠)라 하였고, 1927년 경덕사(景德祠)로 개칭하였다. 1945년 월계서원으로 복칭(復稱)되어 매년 10월 중정일(中丁日)에 제사하고 있다. 장양수 신도비가 월계서원 남쪽 언덕 위에 장말익 신도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후손들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2리 매정동(梅亭洞) 용호언덕 위에 제단과 제단비를 세우고 제향하고 있다.

월계서원에는 장양수 급제 패지가 소장되어 있다. 장양수가 1205년(희종 1)에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내려진 급제 패지는 현재 남아 있는 실물 4건과 전사(轉寫)되어 전해지지는 2건 등 총 6건의 고려 홍패 중 가장 오래된 실물로서 국보 제181호로 지정되었다. 월계서원의 사당인 경덕사(景德祠) 옆에 따로 국보각(國寶閣)을 지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모사본(摸寫本)을 전시하고 있다. 장양수 급제 패지에는 세로 44cm, 가로 88cm의 누런 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총 12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과 몇 자의 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독이 가능하다고 하나 육안으로는 ‘우인장양수교가병과교고첩급제첩지(右人張良守教可丙科教古牒及第牒旨)’ 등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2. 서재(書齋)

울진 지역의 서재에는 임천서재(臨川書齋), 애모재(愛慕齋), 거이재(居易齋), 지장서재(智藏書齋), 소행재(素行齋), 백은재(白隱齋) 등이 있었다.

1) 거이재(居易齋)

거이재는 가암(柯菴) 전원식(田元植)이 가동정사(柯洞精舍)와 함께 후진을 양성하던 곳으로 사용한 재(齋)이다. 1951년 울진읍 정림 2리 신가동(新柯洞)에 창건하였으며, 거이재(居易齋)라 불렀다.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친필로 거이재(居易齋)를 편액(扁額)하였다. 항상 중용(中庸)의 도를 지키고 그 밖인 원하지 않는 평탄함에 머물며 천명(天命)을 기린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시 유현(儒賢)들의 격려 시(詩)와 기(記) 및 제(題)가 남아 있다. 전원식이 경기도 여주로 이사 가면서 허물어졌다. 1993년 제자들이 중심이 된 가암학회(柯菴學會)에서 거이재 터에 가암선생유허비(柯菴先生遺墟碑)를 세웠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의 가동정사(柯洞精舍) 시와 현곡(玄谷) 유영선(柳永善)의 거이재(居易齋) 기(記)가 있다.

2) 백은재

백은재는 온정면 소태1리에 있었다. 백은(白隱) 이천추(李天樞)가 선조 연간 이곳에 입주해 지은 재(齋)이다. 이천추는 이곳에서 후학에게 강학(講學)하였다. 여러 차례 개보수를 하였으나 1979년 백암온천구획정리사업으로 폐가(廢家)되었다. 1988년에 광주 이씨(廣州李氏) 후손들이 신축하였다.

3) 소행재(素行齋)

소행재는 울진읍 정림1리 비봉산(飛鳳山) 아래에 세워졌다. 소행재는 1910년 신림리(新林里) 덕은산(德隱山) 기슭에 세워졌다가 1921년 현 울진읍 정림1리로 이건하였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艮齋門人) 장덕(張德), 무실재(務實齋) 남진영(南軫永) 등 수십 명의 동학생과 향내 후진 약간명이 강학 장소를 세웠다. 이때 간재 전우가 소행재(素行齋)라 쓴 친필과 장편시구(長篇詩句)를 보내와, 제자들을 격려했다. 제자들은 소행재 글귀가 적힌 문건과 장편시구를 강습소 벽에 붙혀놓고 학문을 도야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행재는 도(道)를 강의하고 예(禮)를 익히던 곳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후진이 점차 해산됨에 따라 폐허가 되었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의 소행재(素行齋) 이건기(移建記)가 있다.

4) 애모재(愛慕齋)

애모재는 평해읍 오곡리에 세워졌다. 효자 황연(黃衍)이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고자 세

운 유모지소(孺慕之所)이다.

5) 임천서재

임천서재는 근남면 노음리 성류굴 아래에 세워졌다. 일인(逸人) 남세영(南世英)이 임천서재에서 강학하거나 바둑을 두며 술을 마시면서 즐기던 곳이었다. 현존하지 않는다.

6) 지장서재

지장서재는 북면 고목1리 지장동 가치산 아래에 세워졌다. 원래 명칭은 영립서재(營立書齋)였으나 동명(洞名)을 따서 지장서재라 불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언륜(金彦倫)이 지장서재에서 한문을 수학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3. 향교

1) 울진향교

울진향교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옥계동 산 중턱에 있다. 울진향교는 1484년(성종 15)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월변동에 건립된 후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었다. 사림(士林) 김만주 등이 보수하였지만, 1697년(숙종 23) 고성리 성저동으로 옮겨 세웠다. 1872년(고종 9)에 다시 읍내리 옥계동으로 이축하였다. 1920년 대성전을 중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대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명륜당·태화루·재물고·재기고·향사청·교직사·동무·서무·동재·서재]이 전소되었다. 1977년 교답 1,200평과 대지 일부를 매각하여 1979년 명륜당을 중창하였고, 1984년 사주문, 1987년 재물고, 1990년 서재(6간)를 중건하면서 향교로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월양산 기슭에 남향으로 터를 잡아 대성전·내삼문·명륜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 우측에 제기고가 있다. 출입문은 축선상에 있지 않고 좌측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향교 좌측 담장 밖에 관리사·서재·제물고(祭物庫)가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으며, 전면에 개방된 전퇴를 두고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에 전돌을 깔았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각각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며,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하고 전면과 좌우 측면으로 계자난간을 둘렀다.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인데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온돌방을 두고, 전면에 퇴칸을 설치하였다. 전사청과 제물고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인데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교직사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좌측에 부엌을 두고 연접하여 온돌

방을 둔 형태이다.

향교의 건축물 가운데 대성전은 한국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맞배기와집이다. 대성전의 평면은 앞면을 톱간으로 하여 개방시킨 전퇴형이며, 바닥에는 장마루를 깔았다. 시멘트로 마감한 기단 위에 앞면은 원형주초, 측면은 다듬지 않은 덤벙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공포(拱包) 구성은 앞면에는 이익공(二翼工)을, 배면에는 초익공(初翼工)을 설치하였다. 앞면 이익공에 결합된 부재인 살미는 양설(仰舌)로 하여 길게 빼내 단부(端部)를 사선으로 자르고 연봉을 첨가시킨 형태이고, 배면은 초익공으로 하여 다듬지 않은 판재를 사용하였다.

울진군의 유교 관련 문화유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향교 건축물로 가치가 있다. 비록 현대에 재건되었지만, 조선시대 울진 지역 유교 교육기관 연구에 도움이 된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울진향교는 근대 교육을 배우는 교육 장소로 활용되었다. 1908년 9월 울진공립보통학교를 설립 당시 울진 청년 간부들이 명륜당에서 강학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폐교되었다. 1922년 울진강습소를 명륜당에 설치 개교하게 되었다. 1925년 9월 울진 제동학교로 승격·설립되어 본격적인 사립교육기관으로 근대교육을 실시했지만 1943년 3월 일본의 강압으로 다시 폐교되었다. 20여 년간 배출된 학생 수는 500여 명이다. 당시 현 울진초등학교로 이교(移校)하게 됨에 따라 울진초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1946년 9월 5일 울진공립초급중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받아 향교 건물을 교육 공간으로 사용했으며, 1950년 현 울진 중·고등학교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울진향교는 울진교육의 요람이며 울진의 역사요 향교의 자랑이다.

2) 평해향교

평해향교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향교이다.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평해읍사무소 뒤편 산비탈에 위치하여, 전형적인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향교 입지를 보여준다.

평해향교는 1357년(공민왕 6)에 저전(楮田) 반월산(半月山) 아래에 지었다가 1407년(태종 7)에 군수 김한철(金漢哲)이 송릉동(松陵洞)으로 이건하였다. 당시에는 명색이 향교였을 뿐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부속 건물이 지어졌고, 풍상과 전란 등으로 말미암아 퇴락해져 중수와 보수를 계속하였다. 1470년(성종 1)에는 대성전(大成殿)이, 1474년(성종 5)에는 명륜당(明倫堂)이 지어져 어느 정도 향교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향교가 병화를 입어 소진된 것을 1585년(선조 18)에 수령과 향중(鄉中)이 협찬하여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평해향교가 너무 협소하자 1611년(광해군 3)에 향중의 인사들이 감사 오윤겸(吳允謙)에게 상서하여 동·서무를 건축하고 대성전을 증수(增修)

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686년(숙종 12)에는 제기고(祭器庫)가 지어졌으며, 1732년(영조 8)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었고, 1742년(영조 18)에 비로소 동·서무가 지어졌다. 1869년(고종 6)에는 동·서무와 태화루(太和樓)가 중수되었고, 1886년(고종 23) 가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수리되었다.

향교의 배치는 전학후묘형으로 명륜당 앞면에 동·서재 대신 태화루가 자리하여 대성전과 동일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양 측면에 풍판을 단 맞배지붕으로 전퇴(前退)가 없는 다소 큰 규모이다. 정면 어간문(御間門)에는 쌍여닫이 궁널띠 살문을 달았고, 양 협칸에는 격자 광창을 두었으며, 외여닫이 궁널띠 살문을 내축 기둥에 기대어 달았다. 앞면 벽체에는 판벽에 가로, 세로 띠장을 댄 판벽을 세웠고, 측면과 배면 벽은 심벽으로, 하벽은 부축벽으로 처리하였다.

대성전은 2고주 5량 구조이며, 포대공으로 중도리를 뜯창방을 받도록 하였고, 제형판대 공에 공아를 넣어 종도리를 지지케 하였다. 공포(拱包)는 주심포 계열로 앞면은 외1출목 2익 공 양식이며, 배면은 출목 없이 2익공으로 처리하였다. 살미형상은 길고 날카로우며, 첨자는 단부가 사절(斜切)되었고, 하부는 쌍 S자형으로 초각되었다. 처마의 정면은 겹쳐마로, 배면은 훌처마로 처리하였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모르타르로 마감된 3단의 기단 위에 건물을 앉히고 대지의 경사를 이용해 정면을 누(樓)같이 4척 정도 높여 마루를 두고 있다. 평면 구성은 어칸[御間]에 마루를 두었고, 양 측칸에 1칸 반 규모의 온돌방을 꾸민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다. 오량가구의 초익공(初翼工) 건물로 살미의 형태는 앞면에만 끝을 둥글게 하여 하부를 초각한 형태이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훌처마의 맞배기와집이다. 대성전과 같은 수법으로 어칸을 크게 잡아 전통칸으로 하면서 시멘트 바닥으로 마감하였다. 앞면은 외일출목(外一出目)의 초익공(初翼工)이나 배면은 무출목(無出目)이다. 살미의 형상은 대성전과 동일하다.

태화루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2층 누각 건물로 맞배기와집이다. 막돌 기단을 쌓은 후 누각을 올렸고, 앞면에 계자난간을 돌렸으며, 오른쪽 배면에 계단을 놓아 2층으로 오르게 했다. 이익공(二翼工) 오량(五樑)의 훌처마로 1997년에 중창(重唱)한 건물이다. 옛 건물이 낡아 도괴된 것을 원래의 자리에 같은 규모로 지었다고 한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훌처마 맞배기와집이다. 어칸[御間]을 넓게 잡아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았고, 협칸은 문을 달지 않고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전체적으로 정면이 매우 강조된 느낌을 주는 건물이며, 조선 중기의 건축 형태를 보여준다.